

연구논문

# 전북지역의 가정 생활 향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지역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착을 위한 제안<sup>1)</sup>

김정훈\* · 이정우\*\* · 양명숙\*\*\* · 박성옥\*\*\*\*

원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남대학교 아동학과,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The Needs for the improvement of the family life in the extension programs  
among people living in Chunlabuk-do;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the fixation of the local education programs

Jung-Hoon Kim\* · Jung-Woo Lee\*\* · Myung-Suk Yang\*\*\* · Seung-Oak Park\*\*\*\*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 \*\*Dept. of Social Welfare, Injae Univ.  
\*\*\*Dept. of Child Studies, Hannam Univ.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

**ABSTRACT** : This study was to indicate the direction of the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through understanding people's concerns in the family life education areas and their needs for the program cond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1) Their priorities about educational subjects were human development and parenting for the adolescent group and the adult group and the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ing for the elderly group. 2) They wanted the program provided by professional educators in social education institutes or a local autonomous entity. 3) They needed the program such as 1 week period, 1-2 hours per subject, places within 30min from home.

**Key Words** : extension program, Chunlabuk-do, family life education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농촌의 변화는 매우 급속히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이 변화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라는 인구구조의 편향성과 도시와의 소득 격차 증대, 마스크의 발달로 인한 문화적 인식과 실생활과의 괴리 증대,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응하고 생존해야하는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으로 삶에 대한 긴박성과 초조감, 그리고 이러한 농촌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평가에 따른

농촌 인구의 도시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도시화와 도시에 대한 동경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 연구에서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84%이나 가계비 지출은 더 많은 실정이라고 한다 (배희선·최은숙, 1995). 또한 농촌 가정의 낮은 객관적, 주관적 생활복지 수준이나 만족감 (김인숙, 1993), 시간관리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 (김인숙등, 1996), 전근대적 가족구조 (이한기·한귀정 1994), 재정관리의 문제점 (김인숙, 1995; 노자경, 1996; 배희선·최은숙, 1995; 최은숙, 1995) 및 낮은 소비자 기능 (최은숙·노자경,

1) 본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1995),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김영희·한경혜, 1996; 이정화 등, 1995; 이한기, ·한귀정, 1994) 등도 현재의 농촌 생활의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적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산업화과정에서 도시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수 집단화된 농촌가정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지금껏 농촌가정에 대한 관심은 모든 사회복지체계가 그렇듯 그들을 취약계층으로서 간주하고 이들의 물질적 곤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생활개선교육으로서 지역적인 생활기술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지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가족이 노동력 재생산 단위로서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당연한 정신적, 물질적 곤란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예방적 서비스 차원의 복지욕구 조사와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명숙, 1995; 변용환, 1995). 특히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뿐 아니라 생활환경, 교육수준, 생활의식등이 낙후되어 있고, 교육이나 문화의 접촉 기회가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 지역사회에서 가정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촌 지역 사람들의 가정생활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사회 측면보다 더 낮고, 생활의 질적 수준과 그에 대한 만족감도 지역사회적 측면보다 가정생활 측면이 보다 영향이 있다는 연구 (김인숙, 1993)와 생활 만족도나 질적 수준에 인적 자원의 영향력이 물질적 자원보다 크다는 연구들 (김인숙외, 1996; 박선화·채옥희, 1996; 배희선·최은숙, 1995; 최은숙·노자경, 1995)의 결과를 볼 때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 복지를 접근하는 데는 인적 자원으로서 가정생활측면이 먼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농촌가정의 의식과 가치관, 소비생활, 가족역할등은 많이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정생활양식과 그들이 원하는 삶의 질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대상들로서 농촌 가정의 현실적인 교육욕구를 파악해

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의 교육욕구를 파악하려는 연구들 (나순애·이한기, 1993; 나순애·이승교, 1993; 임광명, 1992)이 있었으나 이것들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농촌 가정의 교육욕구를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로서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갖는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고 '가족생활교육'측면에서 이들의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세부적 교육 영역에의 관심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에게 제공해야할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착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것은 전라북도 지역이 전체적으로 도시적 특성이 행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전통적인 농촌성향지역으로서 문화, 교육, 경제적 혜택이 제한되어 왔으므로, 전라북도 사람들에게 보다 폭넓고 현실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복 가족생활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생활의 만족감 증대를 통해 전북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 II. 연구 배경

### 1. 농촌지역의 생활 특성

도시 중심의 산업화 결과 도시에 비해 농촌은 상대적으로 물질적, 심리적으로 불만족스럽고 낙후된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생활수준 및 그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 있다 (김인숙, 1995; 김인숙·최은숙, 1993; 배희선·최은숙, 1995; 이정화의, 1995; 최은숙·노자경, 1995). 또한 이러한 농촌 가정의 생활의 질이나 생활양식은 이들 가정이나 농촌지역이 갖는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이런 원인들은 농가주부와 그 가족들의 시간사용구조 (김인숙외, 1996), 주부의 역할과 가치관 (박선화·채옥희, 1996), 가정내 의사결정 구조와 가족관계

(김영희·한경혜, 1996; 이영대, 1993; 이한기·한귀정, 1994; 한경혜·장미나, 1993) 등이 있다. 이들은 도시에 비해 농촌 가정들이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으며, 농가주부들이 가사노동과 농작업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는 비균형적 시간사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가족관계에서도 남편우위형이나 인내형 갈등해소 구조를 갖는 등 가족관계의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농촌 가정의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자원보다 인적자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의 결과는 교양(김인숙외, 1996), 가정관리 능력(김인숙, 1995; 김인숙·최은숙, 1993), 자산관리(노자경, 1996), 효율적인 재무관리 능력과 소비자 기능(배희선·최은숙, 1995; 최은숙, 1995; 최은숙·노자경, 1995), 자녀교육 및 부모역할 교육(김영희·한경혜, 1996; 박인선·안지연, 1995), 가족관계(김영희·한경혜, 1996; 이정화외, 1995; 한정혜·장미나, 1993), 가사노동 지역 사회화(박선희·채옥희, 1996; 한경혜·장미나, 1993) 등과 같은 인적 자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보다 가정생활 측면이(김인숙, 1995; 김인숙·최은숙, 1993) 생활의 질이나 이에 대한 만족도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2.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임정빈등의 연구(1998)은 조사대상자들의 27.7%만이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연령과 취업상태가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앞으로의 사회교육 참여 희망은 약 90%에 이르렀는데, 아동 및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요구가 높았고, 주생활 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요구가 낮았다. 연령과 거주지역, 소득집단 가정특성이 가정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 20대에게는 가족관계 개선과 아동 및 청소년, 소비생활, 주생활, 법률,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을, 30대에게는 가족관계개선, 아동 및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50대에는 가정생활개선, 재산증식, 조세, 소비생활개선, 건강관리, 주생활, 소득증대, 자원봉사관련 프로그램을, 중소도시에는 가족관계, 가정생활 개선, 소비생활개선,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임영희등의 연구(1998)에서는 시간관리교육은 자녀교육기와 교육기를 벗어난 주부로 구분해서 교육할 것과, 교육수준과 취업에 따른 분반을 제안하였고,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전관리교육에서는 교육수준과 자산수준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녀양육에서는 교육수준별, 저소득층, 신혼부부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역할 수행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의생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의생활 관련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건강 및 식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에서는 건강을 위한 영양, 운동, 휴식, 식습관과 성인병의 예방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육내용을 1학기 단위로 1주일에 3시간씩 강의하고, 영역별로 필요한 부분을 수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 지역의 노동시간 체계의 불균형이나 농촌지역의 문화적 낙후성과 같은 지역 구조적 특성등에 따른 여가관리 교육(김인숙외, 1996; 나순애·이한기, 1993; 박선희·채옥희, 1996; 이정숙, 1996), 자녀교육관련 교육(박일선·안지연, 1995) 등이 제안되었다.

## 3. 가정생활 향상 교육 내용

가족의 기능이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많은 기능이 축소되고 전이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가족은 그 고유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날 가족의 해체경향에 따라 일부는 보다 강조되는 경향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유영주(1989)는 오늘날 한국 가족의 기능을 성 및 애정기능, 친척관계유지기능, 정서적 지지와 안식처 기능, 자녀의 사회화 기능, 경제적 협력기능, 가계관리 기능, 종교 및 도덕적 기능, 애정표현기능, 자녀교

육 기능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들 기능의 강화는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가정생활에 대한 고정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 배워야 하며,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문제들의 증대속에서 가족을 강화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가족생활교육'운동이 확립되었다. 이것은 가족을 돕고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며,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족생활교육이란 사람들이 가족역할상의 고유한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도록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의도적으로 교사가 행하는 모든 학교경험으로서, 이들과 관련된 사실, 태도, 기술을 포함한다. 또 현재와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계획하고 지침을 마련한 학습경험 프로그램이며, 모든 연령층에 속하는 개인의 역할과 대인관계, 가족유형, 대안적 생활양식, 정서적 욕구에 대한 연구이며, 성의 생리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이다. 또한 가족생활교육은 가정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단위마다 가족발달 자원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통합하는 것을 촉진하며, 개인에게 다양한 생활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 과정이고 개인과 가족이 다면적인 환경 내의 자원들과 상호작용할 때 삶의 질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일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교육의 목적은 건강하고 책임있는 관계의 발달, 건설적이고 성취적인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의 발달, 강한 가족의 형성, 가정생활 향상, 가정생활의 질 향상으로서 잠재력 개발 원리에 기초하여 가정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확립하고, 개인과 가정생활을 증가시키고 풍요롭게 할 인간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교육의 주요 영역으로서 인간발달과 성, 대인관계, 가족상호작용, 가족자원관리, 부모됨에 관한 교육, 윤리, 가족과 사회가 제안되고 있다(이연숙, 1998; 이정연 외, 1996).

한편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영역에 대한 연구 <표1>와 미국 가정학 지도센터(Home Economics Extension Service Center)에 나타난 프로그램 영역 <표2>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 국내 연구의 프로그램 제안

연구 명	프로그램 제안 영역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임영희 외, 1997)	가정관리, 경제생활, 자녀양육, 의생활, 건강 및 식생활
가정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 (임정빈 외, 1997)	가족관계 개선, 아동 및 청소년관련, 가정생활개선,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소비생활개선, 노후생활준비, 건강관리, 주생활관리,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가정생활관련 법률상식, 가정소득 증대, 자원봉사, 생활문화 육성 프로그램
성남시 여성의 사회교육 요구분석 (이길순 · 이원영, 1997)	기초교양, 직업전문, 건강보건, 가정생활, 취미여가, 국제이해, 전통문화
노인의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학습요구도 분석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어성연 · 신상욱, 1996)	여가시간활용, 가족관계, 건강한 노년생활, 가계운영
사회교육에서의 가족자원관리 교육의 전개방향 (정영금, 1996)	시간자원관리, 노동관리, 재무관리, 환경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미국 오하이오주의 실천적 문제 중심 모형을 적용한 "일과 가족생활 교육과정"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도 (채정현, 1996)	개인발달, 자원관리, 영양과 건강, 가족관계, 부모됨, 인생계획

〈 표 2 〉 미국 가정학 실천센터의 시행 프로그램

주	프로그램 영역
메릴랜드	Enhancing human development, Improving diet, nutrition, and health, Increasing family economic stability
알라바마	Home based business, Home environment, Food safety and quality
알래스카	Expanded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amily and community stability, Foods nutrition, Parenting and child care
오레곤	Parenting, Family relationship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Diet, nutrition, and health, Family development and resource management, Leadership and community development
플로리다	Housing and built environment, Nutrition and diet, family economic stability, Expanded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Successful parenting, Decisions for health, Family nutrition program
버지니아	Health, nutrition, and foods,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parenting and families
워싱턴	Sustaining agri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Food safety and health, Capacity building in families and youth, Environmental stewardship, Community and economy vitality
텍사스	Consumer decision making contest, High school financial planning program, Master volunteer money management, Consumer credit fairs
아이오와	Family financial management, Consumer decision making, Credit education
캘리포니아	Expanded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amily development, Consumer science, 4-H youth development
유타	Finance, Planning, and Management, Housing, Individual living skills, Family issues, Youth Issues, Individual issues, Nutrition and health, Food preparation and preservation, Language and cultural issues
코네티컷	Parenting, 4-H and youth development, nutrition, Food safety, Child care, Money management
아이다호	Economic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for people and communities, Family development and resource management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노년층, 성인층, 그리고 청소년층의 그룹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이와같이 연구대상을 3그룹으로 나눈 것은 이들이 세대에 따라 개인적 조건이나 능력, 관심도가 차이가 있어 프로그램

대상자로서 따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년층은 60세 이상, 성인층은 20세에서 60세이하, 청소년층은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년층은 220명, 성인층은 350명, 청소년층은 350명을 표집하여 각 연령층에서 남녀를 동수로 조사하였다.

표집은 지역의 인구비례를 염두에 두고 전라북

도의 다양한 지역이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는데, 전주, 군산, 익산의 시지역과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지역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노년층은 전주, 군산, 익산지역은 남녀 각각 20명씩 각 지역 40명씩,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은 남녀 각각 10명씩 각 지역 20명씩을 조사하였다(총 220명). 성인층은 전주지역에서 남녀 각각 50명씩 100명을, 군산과 익산지역에서 남녀 각각 25명씩 100명, 그리고 정읍등 기타지역에서 남녀 각각 15명씩 150명을 조사하였다(총 350명). 청소년층은 전주지역은 남녀 각각 50명씩 100명을, 군산과 익산은 남녀 각각 25명씩 100명을, 그리고 기타 지역은 남녀 각각 15명씩 150명을 조사하였다(총 350명).

조사도구는 미국 가정학 실천기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들과 기존의 연구들(어성연·신상욱, 1996; 이길순·이원영, 1997; 임영희외, 1998; 임정빈외, 1997; 정영금, 1996; 채정현, 1996; Rodgers, and etc, 1995a, 1995b, 1995c; <http://www.hec.ohio.edu/hanna/>) 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본 질문에 앞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서술이나 척도들을 조사대상자들에 맞게 수정하였다. 특히 다양한 연령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 척도의 수준을 3점 리커트 척도로 단순화시켰다.

또한 본 조사는 자기기입식과 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자가 원하는데 따라 자신이 직접 기입하거나 면접자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는 대개 면접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노년층의 특성상 조사과정에서 응답을 강요하거나 힘겹게 하지 않는 수준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문항에 따라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조사는 1998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실시되었는데, 청소년층 350부, 성인층 350부, 노년층 220부를 조사 회수하여, 응답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79부를 제외하고 총 851부(청소년 342부, 성인 337부, 노년층 172부)가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 문항은 인구통계적 특성,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기대, 가족생활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에 대한 욕구를 묻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생활 향상 교육 내용은 교육주제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과 사례들을 참고하여 구체적 교육내용을 예시하여 각 교육주제에 대한 요구도를 측정 한 후, 평균 요구도 수준에 따라 교육 주제에 대한 요구를 우선순위화하고, 교육주제를 예시없이 가장 원하는 교육주제순으로 우선순위화 하도록 하여 이 두 응답을 조합하여 각 응답자의 가장 요구가 높은 주제를 예측 사용하였다. 즉 같은 평점이 두 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 스스로 우선순위화한 교육 주제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고,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무응답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PC+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통계절차를 거쳤고, 성, 세대,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교육수준, 용돈수준등의 차이에 의한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t-test, one way ANOVA등이 이용되었다. 가설검증은 .10 수준에서 유의검증하였다. 이들 변수들중 세대와 교육수준은 이들이 갖는 관심과 교육능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배우자 및 종교 유무는 생활조건과 환경(금전 및 시간 관리 및 가치관)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인식되어 선택되었다. 또한 용돈수준은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이 정규적인 교육이 아니라 제2차적 교육이므로 가계전체의 경제수준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경제능력 및 흐름과 관련된다고 생각되고, 또 노인층의 경우 자녀가족과 동거할 경우에, 가계전체의 경제수준보다 더 유의한 경제적 척도로 생각되어 선택되었다.

#### IV. 연구결과의 해석

##### 1.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청소년들은 약 17세, 성인들은 약 41세, 노인들은 약 68세였으며,

전북지역의 가정 생활 향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 지역사회복지 교육

이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약 170만원 정도였다.  
또 이들의 한달 용돈은 청소년들은 약 5만6천원,  
성인들은 26만원, 노인들은 17만원정도였는데 성

인과 노인층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컸다 < 표3 >.  
학력은 성인층의 경우는 고졸이상이 많았으나,  
노인층에서는 고졸이하가 많았다. 직업은 사무직

< 표 3 >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1)

변 인	청 소 년			성 인			노 인			계 (851)
	남 (N=168)	여 (N=174)	계 (N=342)	남 (N=154)	여 (N=183)	계 (N=337)	남 (N=95)	여 (N=77)	계 (N=172)	
연령(세)	17.46 (.65)	17.82 (.82)	17.65 (.76)	41.77 (9.41)	40.34 (10.02)	40.99 (9.76)	67.41 (5.90)	68.18 (6.18)	67.75 (6.07)	37.06 (19.85)
월평균 소득(만원)	182.45 (97.04)	161.44 (81.53)	170.69 (89.02)	170.17 (126.50)	186.10 (106.56)	178.96 (115.17)	162.01 (93.11)	17.33 (91.87)	155.20 (92.46)	171.36 (104.41)
한달평균 용돈(천원)	56.53 (46.22)	55.18 (51.05)	55.85 (48.66)	284.36 (209.84)	229.69 (183.62)	255.43 (117.95)	202.27 (179.73)	134.42 (143.20)	172.90 (167.86)	154.79 (171.41)

< 표 4 >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2)

변 인	청 소 년			성 인			노 인			
	남(N=168)	여(N=174)	계(N=342)	남(N=154)	여(N=183)	계(N=337)	남(N=95)	여(N=77)	계(N=172)	
학 력	초등학교이하			8(5.3)	17(9.3)	25(7.5)	34(35.4)	47(61.8)	81(47.1)	
	중학교			21(13.8)	26(14.2)	47(14.0)	23(24.0)	16(21.2)	39(22.7)	
	고등학교	165(100.0)	171(100.0)	336(100.0)	59(38.8)	88(43.8)	147(43.9)	32(33.3)	8(10.5)	40(23.3)
	대학교이상				64(42.1)	52(28.4)	116(34.6)	7(7.3)	5(6.6)	12(7.0)
직 업	전문·기술·경영			14(9.1)	11(6.1)	25(7.5)	10(12.2)		10(6.1)	
	사무직·자영업			115(74.7)	55(30.7)	170(51.1)	19(23.2)	6(9.7)	25(16.5)	
	학생	165(100.0)	171(100.0)	336(100.0)	3(1.9)	7(3.9)	10(3.0)			
	농업·기타(주부)				22(14.3)	106(59.2)	128(38.4)	53(64.6)	56(90.3)	109(77.5)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128(83.1)	151(83.4)	279(83.3)	77(81.1)	42(54.5)	119(69.2)	
				26(16.9)	30(16.6)	56(16.7)	18(18.9)	35(45.5)	53(30.8)	
종 교	있음	92(54.8)	98(56.3)	190(55.6)	85(55.2)	107(58.8)	192(57.1)	52(54.7)	55(77.5)	107(64.5)
	기독교	60(64.5)	69(68.3)	129(66.5)	51(60.7)	74(67.9)	125(64.8)	23(44.2)	24(43.6)	47(43.9)
	천주교	17(18.3)	16(15.8)	33(17.0)	12(14.3)	12(11.0)	24(12.4)	9(17.3)	9(16.4)	18(16.8)
	불교	15(16.1)	16(15.8)	31(16.0)	20(20.2)	22(20.2)	42(21.8)	19(36.5)	22(40.0)	41(38.3)
	기타	1(1.1)		1(.5)	1(1.2)	1(.9)	2(1.0)	1(1.9)		1(.9)
없음	76(45.2)	76(43.7)	152(44.4)	69(44.8)	75(41.2)	144(42.9)	43(45.3)	16(22.5)	59(35.5)	
용 돈	1 하하			40(29.2)	57(37.0)	97(33.3)	1(1.1)		1(1.0)	
	2 하	105(65.2)	118(71.5)	223(68.4)	35(25.5)	51(33.1)	86(29.6)	50(53.8)	53(74.6)	103(62.8)
	3 중	44(27.3)	32(19.4)	76(23.3)	26(19.0)	22(14.3)	48(16.5)	26(28.0)	14(19.7)	40(24.4)
	4 상	12(7.5)	15(9.1)	27(8.3)	36(26.3)	24(15.6)	60(20.6)	16(17.2)	4(5.6)	20(12.2)

\* N(%) 무응답을 제외시켰으므로 변수별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 용돈 그룹은 1. M-1SD이하 2. (M-1SD)에서 M 3. M에서 M+1SD 4. M+1SD이상으로 분류함

과 자영업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는 주부가 많았는데, 농촌지역의 특성상 농업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며, 성인층은 80%정도가 배우자가 있었고, 노인층은 70%정도가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남녀별로 차이가 컸다.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갖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표4>.

## 2. 가정생활 향상 교육에 대한 욕구

### 1)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 관심

청소년, 성인, 노인층 모두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 세 그룹간에 청소년층은 자연자원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다른 그룹들에 비해 컸고, 그 외 그룹들은 농업이나 직업에 대한 관심이 컸다. 또한 가족의 기능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그룹

에서 정서적 지지와 안식처기능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지적하였으나, 청소년은 그다음으로 애정기능, 자녀사회화 및 교육기능, 친척관계유지기능, 종교 및 도덕적 기능, 가계관리기능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성인층은 자녀교육, 애정기능, 친척관계유지, 가계관리, 종교 및 도덕적 기능을, 노인층은 자녀교육, 가계관리, 애정과 종교 및 도덕기능, 친척관계유지 기능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영역인식( $\chi^2=26.154$ ,  $p=.001$ ) 및 가족기능의 중요도 인식( $\chi^2=93.365$ ,  $p=.001$ )에서 남녀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세대간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2) 세부 교육 주제에 대한 관심

교육 주제별 관심을 우선순위화하면 청소년들의 경우는 인간발달, 좋은 부모되기, 주거환경, 가치관과 윤리, 가족간 상호작용의 순이었고, 성인들의 경우는 좋은 부모되기, 인간발달, 가족간

< 표 5 > 가정생활 향상 교육 주제에 대한 관심순위

	청 소 년			성 인			노 인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가족간 상호작용	5( 4.0)	7( 6.6)	12( 5.2)	19( 18.1)	9( 7.6)	28( 12.6)	23( 32.9)	14(25.0)	37(29.4)
지원관리	2( 1.6)	1( .9)	3( 1.3)	2( 1.9)	8( 6.8)	10( 4.5)	1( 1.4)	2( 3.6)	3( 2.4)
영양과 건강	5( 4.0)	1( .9)	6( 2.6)	3( 2.9)	10( 8.5)	13( 5.8)	2( 2.9)	11(19.6)	13(10.3)
좋은 부모되기	31(25.0)	22(20.8)	53(23.0)	38( 36.2)	43( 36.4)	3( 6.3)	17( 24.3)	13(23.2)	30(23.8)
지역사회와 가정	1( .8)	1( .9)	2( .9)	3( 2.9)	3( 2.5)	6( 2.7)	2( 2.8)		2( 1.6)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5( 4.0)	3( 2.8)	8( 3.5)	4( 3.8)	12( 10.2)	16( 7.2)	2( 2.8)		2( 1.6)
가치관과 윤리	7( 5.6)	8( 7.5)	15( 6.5)	7( 6.6)	10( 8.5)	17( 7.6)	8( 11.4)	6(10.7)	14(11.1)
인간발달	54(43.5)	36(34.0)	90(39.1)	21( 20.0)	14( 11.9)	35( 15.7)	6( 8.6)		6( 4.8)
생활기술	3( 2.4)	2( 1.9)	5( 2.2)		2( 1.7)	2( .9)	2( 2.9)	89(14.3)	10( 7.9)
주거환경	11( 8.9)	15(14.2)	26(11.3)	8( 7.6)	10( 8.5)	18( 8.1)	7( 10.0)		7( 5.6)
계	124(99.8)	106(90.5)	230(95.6)	105(100.0)	118(102.6)	223(101.4)	70(100.2)	56(96.4)	126(98.5)
남녀의 차이	$\chi^2 = 11.561$			$\chi^2 = 21.906^{***}$			$\chi^2 = 16.284^*$		
세대의 차이	$\chi^2 = 25.146^{***}$								

N(%)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소수세째자리 반올림으로 100%가 안된 부분이 있음.

상호작용, 주거환경, 가치관과 윤리, 일과 가정생활 조화의 순이었다.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는 가족간 상호작용, 좋은 부모되기, 가치관과 윤리, 영양과 건강, 생활기술의 순이었다. 이들은 남녀별로 성인층과 노년층에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세대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5 >.

또한 < 표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 주제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그룹에서는 어떠한 인구통계적 변수에 의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성인그룹에서는 성별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노인그룹의 경우에는 성별과 교육수준, 용돈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성인 남성들은 성인여성들보다 가족간 상호작용에 관심이 더 많았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자원관리, 영양과 건강,

생활기술,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와 같이 가정내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주제들에 관심이 많았다. 노인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용돈수준이 낮은 경우에 가족간 상호작용, 영양과 건강, 좋은 부모되기 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표7 >.

< 표 6 >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가정생활향상 교육 주제에 대한 관심도

변 수	청소년	성인	노인
	x <sup>2</sup> p	x <sup>2</sup> p	x <sup>2</sup> p
종교유무	5. 291	12. 003	5. 892
배우자유무		7. 478	13. 630
교육수준		48. 186	42. 765**
용돈수준	10. 616	27. 119	89. 027****

< 표 7 >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가정 생활 향상 교육 주제에 대한 관심 분포

변 수		상호작용	자원관리	영양건강	좋은부모	지역사회와 가정	일과가정생활조화	가치관 윤리	인간발달	생활기술	주거환경	계
성인												
성별	남	19( 8.1)	2( 1.9)	3( 2.9)	38(36.2)	3( 2.9)	4( 3.8)	7( 6.7)	21(20.0)		8( 7.0)	105(100.0)
	여	6( 5.1)	8( 6.8)	10( 8.5)	43(36.4)	3( 2.5)	12(10.2)	10( 8.5)	14(11.9)	2( 1.7)	10( 8.5)	118(100.0)
계		25(11.2)	10( 4.5)	13( 5.8)	81(36.3)	6( 2.7)	16( 7.2)	17( 7.6)	35(15.7)	2( .9)	18( 8.1)	223(100.0)
노인												
성별	남	23(32.9)	1( 1.4)	2( 2.9)	17(24.3)	2( 2.9)	2( 2.9)	8(11.4)	6( 8.6)	2( 2.9)	7(10.0)	70(100.0)
	여	14(25.0)	2( 3.6)	11(19.6)	13(23.2)			6(10.7)	2( 3.6)		8(14.3)	56(100.0)
계		37(29.4)	3( 2.4)	13(10.3)	30(23.8)	2( 1.6)	1( 1.6)	14(11.1)	8( 6.3)	2( 1.6)	15(11.9)	126(100.0)
교육	초등학교이하	26(39.4)	1( 1.5)	10(15.1)	15(22.7)	1( 1.5)	1( 1.5)	3( 4.5)	1(10.5)		8(12.1)	66(100.0)
	중학교	6(20.0)	1( 3.3)	2( 6.6)	6(20.0)	1( 3.3)		3(10.0)	3(10.0)	2( 6.6)	6(20.0)	30(100.0)
	고등학교	3(13.0)	1( 4.3)		8(34.8)		1( 4.3)	6(26.1)	4(17.4)			23(100.0)
	대학교이상	2(28.6)		11( 4.3)	1(14.3)			2(28.6)			1( 4.3)	7(100.0)
계		37(29.4)	3( 2.4)	13(10.3)	30(23.8)	2( 1.6)	2( 1.6)	14(11.1)	8( 6.3)	2( 1.6)	15(11.9)	126(100.0)
용돈	1 하하					1(100.0)						1(100.0)
	2 하	28(32.2)	3( 3.5)	12(13.8)	20(23.0)		1( 1.5)	9(10.3)	6( 6.9)	1( 1.5)	7( 8.1)	87(100.0)
	3 중	6(28.6)			5(23.8)	1( 4.8)	1( 4.8)	1( 4.8)		1( 4.8)	6(28.6)	21(100.0)
	4 상	1(11.1)			3(33.3)				1(11.1)	1( .0)		9(100.0)
계		35(29.7)	3( 2.5)	12(10.2)	28(23.7)	2( 1.7)	2( 1.7)	14(11.9)	7( 5.9)	2( 1.7)	13(11.0)	118(100.0)

N(%) \* 용돈 그룹은 각 그룹별로 (< 표3 > 참조)

1. M-1SD이하 2. (M-1SD)에서 M 3. M에서 M+1SD 4. M+1SD이상으로 분류함

### 3.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 1) 경험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사회교육'이라는 단어에는 상당히 친숙해 있었으며 이것은 세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년과 성인이 노인들보다 사회교육이라는 단어에 보다 친숙함을 나타냈다. 남녀별로는 청소년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친숙함을 보였다. 또한 실제로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성인과 노인은 각각 16.8%, 14.3%가 참여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청소년은 3.8%만이 참여경험이 있었다. 이는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인과 노인들이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조사대상자들은 앞으로 사회교육에

참여의사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60%이상이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인들이 가장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고, 노인 그리고 청소년 순이었다. 그리고 성인들에게 있어서만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나타냈다(표8).

조사결과,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여성회관, 시민회관, 사회교육센터에서 교육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26.8%), 다음이 학교나 노인대학등(22.0%), 그리고 시청이나 교회가 각각 11.0%로 그 다음이었다. 그외 우체국, 농촌지도소, 박물관등이 있었다. 이들이 받은 교육내용은 건강과 운동, 취미생활이 각각 18.3%

< 표 8 > 사회교육, 평생교육 친숙도 및 경험

	청소년			성인			노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용어에 대한 친숙도M(SD)	3.14(1.10)	3.42(1.25)	3.28(1.19)	3.42(1.24)	3.45(1.29)	3.43(1.27)	2.94(1.42)	2.52(1.39)	2.75(1.42)	3.23(1.29)	
남녀의 차이	t = 8.690***			t = 1.120			t = 0.549				
세대의 차이	t = 16.882****										
참여경험 N(%)	유	6(3.6)	7(4.1)	13(13.8)	27(17.9)	30(16.8)	57(16.8)	13(14.0)	11(14.7)	24(14.3)	94(11.2)
	무	162(96.4)	165(95.9)	327(96.2)	124(82.1)	149(83.2)	273(82.7)	80(86.0)	64(85.3)	144(85.7)	744(88.8)
남녀의 차이	$\chi^2 = 1.223$			$\chi^2 = 1.253$			$\chi^2 = 0.187$				
세대의 차이	$\chi^2 = 3.775**$										
교육내용, 방법에 대한 만족도 M(SD)	3.08(.90)	3.00(.15)	3.06(.93)	3.48(.58)	3.77(.72)	3.64(.67)	3.71(.99)	3.58(.79)	3.65(.89)	3.55(.80)	
남녀의 차이	t = 0.057			t = 1.253			t = 0.819				
세대의 차이	t = 37.946****										
앞으로 참여의사 N(%)	유	99(58.9)	108(62.4)	207(60.7)	90(58.4)	134(74.9)	224(67.3)	62(65.3)	46(59.7)	108(62.8)	539(63.7)
	무	69(41.1)	65(37.6)	134(39.3)	64(41.6)	45(25.1)	109(32.7)	33(34.7)	31(40.3)	64(37.2)	307(36.3)
남녀의 차이	$\chi^2 = 0.437$			$\chi^2 = 12.710*$			$\chi^2 = 1.363$				
세대의 차이	$\chi^2 = 11.733*$										

'용어에 대한 친숙도'는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이란 용어에 대한 친숙도, '교육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과거 받은 교육내용, 방법에 대한 만족도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로 가장 많았고, 진학관련 상담이 11.3%, 가정생활이 9.9%였고, 기타 청소년 선도, 부모역할, 안보 및 통일등이 있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경험한 교육내용과 방법등에 만족하는 경향 (M=3.55)을 보였는데 이는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775, p<.026). 그결과, 청소년들이(M=3.06) 성인이나(M=3.64) 노인들(M=3.65)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그런데 이들은 경험한 교육내용에 대해 내용의 지루함과 내

용의 포괄성, 학습자에게 과제부여,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거나 높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방법에서는 일방적인 강의 방식(71.4%), 학습자의 욕구파악 부족(7.1%), 교육에 대한 호응도(7.1%)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다고 응답하거나 방법에서 학습자 욕구파악부족을 지적한 것은 노인층이었다.

2) 교육 참여에 따른 기대 및 요구

< 표9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가장

< 표 9 > 교육참여시 기대와 요구

	청 소 년			성 인			노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교육 참여 시 고려 사항	시간여유	38(22.9)	36(20.7)	74(21.8)	51(32.9)	53(29.1)	104(30.8)	5( 5.2)	12(15.6)	17( 9.8)	195(22.9)
	비용	26(15.7)	20(11.5)	46(13.5)	21(13.5)	28(15.4)	49(14.5)	44(45.8)	47(61.0)	91(52.6)	186(21.9)
	교육기관까지의 거리	8( 4.8)	4( 2.3)	12( 3.5)	2( 1.3)	6( 3.3)	8( 2.4)	10(10.4)	11(14.3)	21(12.1)	41( 4.8)
	교육자	15( 9.0)	14( 8.0)	29( 8.5)	22(14.2)	28(15.4)	50(14.8)	21(15.4)	3( 3.9)	24(13.9)	103(12.1)
	교육방법	79(47.6)	100(57.5)	179(52.6)	59(38.1)	67(36.8)	126(37.3)	16(16.7)	4( 5.2)	20(11.6)	325(38.2)
남녀의 차이	$x^2 = 4.482$			$x^2 = 2.967$			$x^2 = 21.906^{****}$				
세대의 차이	$x^2 = 99.217^{****}$										
교육 시기	봄	6( 3.6)	11( 6.3)	17( 5.0)	32(18.7)	34(19.6)	66(19.6)	25(29.9)	23(29.9)	48(27.7)	131(15.4)
	여름	6( 3.6)	3( 1.7)	9( 2.6)	7( 3.8)	7( 3.8)	16( 4.7)	3( 3.1)	2( 2.6)	5( 2.9)	30( 3.5)
	가을	21(12.5)	12( 6.9)	33( 9.6)	24(13.2)	24(13.2)	46(13.6)	16(16.7)	14(18.2)	30(17.3)	109(12.8)
	겨울	1( .6)	6( 3.4)	7( 2.0)	18( 9.9)	18( 9.9)	41(12.2)	13(13.5)	11( 4.3)	24(13.9)	72( 8.5)
	아무때나	15( 8.9)	14( 8.0)	29( 8.5)	42(23.1)	42(23.1)	76(22.6)	22(22.9)	19(24.7)	41(23.7)	146(17.1)
	방학기간	101(60.1)	116(66.7)	217(63.5)	46(25.3)	46(25.3)	78(23.1)	7( 9.1)	7( 9.1)	23(13.3)	318(37.3)
	학기중	15(10.7)	12( 6.9)	30( 8.8)	11( 6.0)	11( 6.0)	14( 4.2)	1( 1.3)	1( 1.3)	2( 1.2)	46( 5.4)
남녀의 차이	$x^2 = 10.666^*$			$x^2 = 6.814$			$x^2 = 2.265$				
세대의 차이	$x^2 = 227.812^{****}$										
교육 기간	1개월단위	56(33.3)	58(33.3)	114(33.3)	43(27.7)	51(27.9)	94(27.8)	25(26.0)	25(32.5)	50(28.9)	258(30.2)
	3개월단위	30(17.9)	40(23.0)	70(20.5)	24(15.5)	39(21.3)	63(18.6)	10(10.4)	5( 6.5)	15( 8.7)	148(17.4)
	6개월단위	7( 4.2)	5( 2.9)	12( 3.5)	4( 2.6)	1(16.0)	15( 4.4)		3( 3.9)	3( 1.7)	30( 3.5)
	1년	4( 2.4)	6( 3.4)	10( 2.9)	9( 5.8)	3( 1.6)	12( 3.6)	1( 1.0)	2( 2.6)	3( 1.7)	25( 2.9)
	1일	11( 6.5)	12( 6.9)	23( 6.7)	20(12.9)	18( 9.8)	38(11.2)	18(18.8)	18(23.4)	36(20.8)	97(11.4)
	1주일이내	60(35.7)	53(30.5)	113(33.0)	55(35.5)	61(33.3)	116(34.3)	42(43.8)	24(31.2)	66(38.2)	295(34.6)
남녀의 차이	$x^2 = 2.570$			$x^2 = 8.675$			$x^2 = 7.918$				
세대의 차이	$x^2 = 36.189^{****}$										

N(%)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 표 계속 >

〈 표 9 계속 〉 교육참여시 기대와 요구

		청 소 년			성 인			노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교육 기관 까지 거리	30분 이내	140(83.3)	156(89.7)	296(86.5)	111(73.0)	157(86.7)	268(80.5)	87(91.6)	72(93.5)	159(92.4)	723(85.4)
	1시간	23(13.7)	15( 8.6)	38(11.1)	36(23.7)	20(11.0)	56(16.8)	8( 8.4)	5( 6.5)	13( 7.6)	107(12.6)
	1시간 이상	5( 3.0)	3( 1.7)	8( 2.3)	5( 3.3)	4( 2.2)	9( 2.7)				17( 2.0)
남녀의 차이		$x^2 = 2.945$			$x^2 = 11.501^{**}$			$x^2 = 1.033$			
세대의 차이		$x^2 = 19.626^{**}$									
1회 교육 시간	1-2시간	143(85.1)	158(91.9)	301(88.5)	114(73.5)	145(81.0)	259(77.5)	79(82.3)	51(66.2)	130(75.1)	690(81.5)
	반나절	22(13.1)	13( 7.6)	35(10.3)	32(20.6)	31(17.3)	63(18.9)	11(11.5)	20(26.0)	31(17.9)	129(15.2)
	한나절	3( 1.8)	1( .6)	49( 1.2)	9( 5.8)	3( 1.7)	12( 3.6)	6( 6.3)	6( 7.8)	12( 6.9)	28( 3.3)
남녀의 차이		$x^2 = 5.958$			$x^2 = 8.465^{**}$			$x^2 = 6.637^{**}$			
세대의 차이		$x^2 = 26.827^{****}$									
교육 자	공무원	15( 8.9)	8( 4.7)	23( 6.8)	13( 8.4)	14( 7.7)	27( 8.0)	23(24.0)	13(16.9)	36(20.8)	86(10.1)
	교수, 전문 연구원	50(29.8)	55(32.0)	105(30.9)	56(36.1)	53(29.3)	109(32.4)	26(27.1)	22(28.6)	48(27.7)	262(30.9)
	교사	23(13.7)	9( 5.2)	32( 9.4)	7( 4.5)	8( 4.4)	15( 4.5)	1( 1.0)	5( 6.5)	6( 3.5)	53( 6.2)
	사회교육 전문강사	40(47.6)	100(58.1)	180(52.9)	79(51.0)	106(58.6)	185(55.1)	46(47.9)	37( 8.1)	83(48.0)	448(52.8)
남녀의 차이		$x^2 = 12.614^{***}$			$x^2 = 3.834$			$x^2 = 4.724$			
세대의 차이		$x^2 = 37.059^{****}$									
교육 주관 기관	중등학교	20(11.9)	11(60.4)	31( 9.1)	5( 3.2)	4( 2.2)	9( 2.7)	1( 1.1)		1( .6)	41( 4.8)
	농, 수, 축협	6( 3.6)	4( 2.3)	10( 2.9)	8( 5.2)	5( 2.8)	13( 3.9)	13(13.7)	13(16.9)	26(15.1)	49( 5.8)
	시, 도 공공기관	45(20.8)	60(34.9)	105(30.9)	50(32.3)	75(41.9)	125(37.4)	36(37.9)	27(35.1)	63(36.6)	293(34.6)
	대학	35(20.8)	16( 9.3)	51(15.0)	22(14.2)	18(10.1)	40(12.0)	4( 4.2)	10(13.0)	14( 8.1)	105(12.4)
	사회교육원	62(36.9)	81(47.1)	143(42.1)	70(45.2)	77(43.0)	147(44.0)	41(43.2)	27(35.1)	68(39.5)	358(42.3)
남녀의 차이		$x^2 = 14.714^{***}$			$x^2 = 4.837$			$x^2 = 5.921$			
세대의 차이		$x^2 = 62.409^{****}$									

N(%)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중요한 고려사항으로서 교육방법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이 자신의 시간여유를 지적하였으며, 교육시기는 방학기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육기간은 1개월 단위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성인들은 교육방법과 시간의 여유를 중요 고려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교육시기는 방학기간, 교육기간은 1주일 이내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노인들은 비용이 가장 우선되는 고려사항이고 그 다음

이 교육자였으며, 교육시기는 봄 또는 시기에 관계없다고 응답했으며, 교육기간은 1주일 이내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세 그룹 모두 교육기관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내, 1회당 교육시간은 1-2시간, 교육자는 사회교육 전문강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연구원을, 교육실행기관은 사회교육원과 시도공공기관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세대별로는 교육참여시 고려사항, 교육시기, 교육기

간, 교육기관까지 걸리는 시간, 1회교육 시간, 교육자, 교육실행(주관)기관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남녀별로는 청소년은 교육참여시 고려사항, 교육시기, 교육기관까지 걸리는 시간, 1회교육 시간, 교육자, 교육실행기관에서, 성인은 교육기관까지 걸리는 시간, 1회교육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은 교육참여시 고려사항과 1회교육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남학생은 자신의 시간적 여유나, 비용, 교육기관까지의 거리와 같은 외적 요인에 보다 더 신경을 썼으며, 여학생들은 교육방법과 같은 교육 내적인 요인들에 보다 더 신경을 썼고, 여학생들이 교육시기를 방학으로 하고자 하는 경향이 남학생들보다 더 컸다. 또 교육기관까지 걸리는 시간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가까운 곳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다 강하게 보였고, 교육자에 있어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학교교사를 선호하는 경향과 교육실행기관으로서 대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컸다.

성인들은 교육기관까지 걸리는 시간과 1회 교육 시간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시간적 요인을 훨씬 중요시 여겨서 시간을 적게 들여 절약을 하려는 경향을 더 강하게 나타냈다. 노인들은 여성은 시간과 비용, 거리와 같은 교육 외적인 요인들에 더 신경을 썼으며, 남성들은 교육자와 교육방법과 같은 교육 내적인 요인들에 더 신경을 썼고, 1회교육 시간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짧은 시간을 선호하였다.

노인들은 교육에 참여할 때 여성은 비용, 시간 여유, 교육기관까지의 거리와 같은 자기관련 요인들을 중요시하는데 비해 남성은 비용, 교육방법, 교육자등 교육의 질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1회교육시간으로 남성은 80% 이상이 1-2시간을 선호하였으나, 여성은 반나절정도도 26%나 되어 교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할 의사를 나타냈다< 표9>.

또한 <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층에

< 표 10 >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교육참여시 기대와 요구

	교육참여시 고려사항	교육시기	교육기간	교육장소 까지 거리	1회당 교육시간	교육자	교육주관 기관
	x <sup>2</sup> p	x <sup>2</sup> p	x <sup>2</sup> p	x <sup>2</sup> p	x <sup>2</sup> p	x <sup>2</sup> p	x <sup>2</sup> p
<b>청소년</b>							
종교유무	.371	1.323	12.267	3.330	1.883	1.742	6.892
용돈수준	.398	15.410	23.440**	5.065	3.682	10.858	13.399*
<b>성인</b>							
배우자유무	1.315	13.544	3.956	7.502	1.973	1.136	13.364***
종교유무	6.943**	4.474	6.217	3.076	6.363*	3.696	2.504
교육수준	7.055	23.913	14.479	31.551**	9.746	24.816	46.632****
용돈수준	5.432	26.911**	9.657	3.471	6.073	18.033**	12.800
<b>노인</b>							
배우자유무	7.777**	6.660	11.844**	.448	1.875	12.534***	7.212
종교유무	2.523	5.369	3.262	.588	1.551	1.582	4.113
교육수준	6.358	17.928	22.603	20.659**	9.372	15.851	18.353
용돈수준	3.702	17.656	13.302	2.524	9.112	17.904**	10.19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서는 용돈수준에 따라 교육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성인들은 배우자 유무에 따라 교육시기와 교육주관기관에서, 종교유무에 따라 교육시 고려사항과 1회당 교육시간에서,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장소까지의 거리, 교육주관기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용돈수준은 교육시기와 교육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노인들은 배우자 유무에 따라 교육시 고려사항과 교육기간, 교육자에서, 교육수준에 따라 교육장소까지의 거리에서 용돈수준에 따라서 교육자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은 교육실행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기타: 정보기기 보유 현황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TV와 라디오 외에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가정에서 컴퓨터와 위성 TV의 보급이 상당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컴퓨터 보급에 비해 통신시설은 확충되지 않아 인터넷등의 이용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이용율은 앞으로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되었다. 노인들의 경우는 청소년과 성인들의 응답과 비교할 때 가정내 컴퓨터나 위성TV등이 설치되어 있어도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기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주로 TV와 라디오에 치중하여 정보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세부적 교육 영역에의 관심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에게 제공해야할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표1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민을 대상으로한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조건이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생활 향상' 교육은 모든 연령층

〈 표 11 〉 현재와 미래시점에서의 정보기기 보유현황과 예상

		청 소 년			성 인			노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위성TV	현재	47(25.8)	34(18.7)	81(44.5)	32(17.6)	51(28.0)	83(45.6)	12( 6.6)	6( 3.3)	18( 9.9)	182(100.0)
	미래	103(62.0)	94(54.0)	197(57.9)	80(52.6)	107(60.1)	187(56.7)	27(29.7)	11(14.5)	38(22.8)	422( 50.4)
컴퓨터	현재	115(28.3)	103(25.4)	218(53.7)	76(18.7)	92(22.7)	168(41.4)	11( 2.7)	9( 2.2)	20( 4.9)	406(100.0)
	미래	155(92.3)	156(89.7)	311(90.9)	132(86.3)	169(94.4)	301(90.7)	45(47.4)	26(33.8)	71(41.3)	683( 80.7)
모 델 (통신시설)	현재	55(42.0)	23(17.6)	78(59.5)	25(19.1)	25(19.1)	50(38.2)	1( .8)	2( 1.5)	3( 2.3)	131(100.0)
	미래	129(77.2)	113(65.3)	242(71.2)	90(59.6)	101(58.7)	191(59.1)	13(15.5)	8(10.7)	21(13.2)	454( 55.2)
케이블 TV	현재	23(21.1)	15(13.8)	38(34.9)	20(18.3)	27(24.8)	47(43.1)	18(16.5)	6( 5.5)	24(22.0)	109(100.0)
	미래	89(53.6)	86(50.3)	175(51.9)	68(45.0)	80(46.0)	148(45.5)	30(33.3)	11(14.5)	41(24.6)	364( 43.9)
TV	현재	160(19.5)	166(20.3)	326(39.8)	145(17.7)	180(22.0)	325(39.7)	91(11.1)	77( 9.4)	168(20.5)	819(100.0)
	미래	163(97.6)	173(99.4)	336(98.5)	148(96.1)	182(99.5)	330(97.9)	94(97.9)	77( 9.4)	171(98.8)	837( 98.4)
라디오	현재	154(20.2)	160(21.0)	314(41.3)	137(18.0)	166(21.8)	303(39.8)	84(11.0)	90( 7.9)	144(18.9)	761(100.0)
	미래	164(97.6)	173(99.4)	337(98.5)	145(94.2)	180(98.4)	325(96.4)	93(96.9)	75(97.4)	168(97.1)	830( 97.4)

N(%) 미래는 현재 있거나 앞으로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임

〈 표 12 〉 인구통계적 변수들에 따른 교육참여시 선호성의 차이

변 수	청 소 년	성 인	노 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주요 영역	1. 가정생활 향상 2. 국가사회경제	1. 가정생활향상 2. 농업과 직업	
가정생활 향상 교육주제 (우선순위)	1. 인간발달 2. 좋은 부모되기	1. 좋은 부모되기 2. 인간발달 3. 가족관계(남)/ 일과 가정생활(여)	1. 가족상호작용 2. 좋은 부모되기 3. 가치관과 윤리(남)/ 영양과 건강(여)
교육시기	방학기간	관계없음	여름제외
교육기간	1주일이내		
교육기관까지의 거리	30분이내		
1회 교육시간	1~2시간		
교육 주관 기관	사회교육원 또는 시도 공공기관		
교육자	교수 또는 전문요원(남)/ 사회교육전문강사(여)	교수 또는 전문요원	사회교육 전문강사
고려사항	시간여유		비용
중요한 가족기능	1. 정서적 지지와 안식처 2. 성과 애정	1. 정서적 지지와 안식처 2. 자녀교육	

에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의식하고 있는 만큼 사회-평생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주요 영역이다.

교육 주제와 관련해서는 1) '좋은 부모되기'와 '인간발달'은 모든 세대에서 관심있는 주제이므로 세대간 합동교육도 가능하며, 따라서 이를 통해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성인들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여성관심)이나 '가족관계'(남성관심)는 기존의 연구들을 고려할 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이므로 이 주제는 남녀 따로 교육하는 것 외에 함께 강의하면서 주제를 연결하여 논의할 수 있게 해주면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3) 여성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남성노인들보다 높고, 조사대상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여성노인들이 영양과 건강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노인들의 경우 노후생활, 특히 노후 독신생활의 기간이 길고 우리나라 노인 여성들은 건강상태도 양호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해서는 1)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교육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제공 장소가 여러곳에 다양하게 분포되어야 하겠다. 2) 교육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하고, 일일 1-2시간의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하므로 한주제당 교육내용은 5시간 (5일 X 1시간)에서 10시간 (5일 X 2시간)으로 프로그램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교육 전문요원 양성이 요구된다. 그럼으로써 교육대상자들의 특성 파악이나 그들에게 맞는 교육방법과 내용 제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사회교육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연관성 없는 주제의 나열이나 짜집기식의 강사선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4) 사회교육은 비영리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제공, 운용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책임 강화라는 관점에서 지역중심의 서비스체계 확대 요구일 것이다. 5) 교수나 전문영역의 연구원들의 사회봉사 차원에서의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 단 이때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주의와 연구가 요망된다. 6) 청소년들은 사회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시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현행 임시위주의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겠으나 우선 현실적으로 그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활시간이나 방학, 임시이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교육이 학교에서 또는 위탁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7) 노인들의 경우는 수강료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싸게 또는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많아야 하겠다.

그외 1) 교육을 실행할 때 굳이 남녀를 따로 편성할 필요는 없으나, 세대별 편성은 교육 효과를 위해 필요하다. 2) 노년층에서는 교육수준과 용돈 수준으로 파악된 경제상태가 교육주제선정에서 고려되면 좋을 것이다. 3) 종교유무가 각 그룹의 여러 주제에서 영향요인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종교단체들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주제선정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현재의 기기 보유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과 성인들은 컴퓨터, TV, 라디오를 통한 교육이 가능하여 CD Rom 등을 통한 교육매체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나 모뎀 등 통신시설이 충분치 않아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은 아직 보급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성인들의 경우 보유현황과 사용능력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사용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노인들은 TV와 라디오를 통한 교육이 가능하므로 모든 연령층에서 전파매체를 통한 '가정생활 향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나 미래 시점에서 모든 기기들의 보유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인터넷을 통한 교육매체 개발과 컴퓨터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정생활 이외의 주제로서 모든 연령층에서 국가의 사회경제 주제 교육에 관심이 높으며, 성인과 노인들은 직업인 농업과 다른 직업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환경과 자연자원을 생활에서 중시하였으므로 '가정생활 향상 교육' 외에 이들 주제들에 대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마련도 요망된다.

본 연구를 통한 자료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 생활개선 프로그램의 지도정책과 실행에 반영하여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보다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제안들은 지방자치가 정착해가는 시점에서 지자체의 공적 시스템과 대학과 같은 교육·연구기관, 농수임협과 같은 공공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 연계를 갖고 지역사회 가정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진정한 욕구충족을 위해 실천적 지도기능 확대 측면에서 농업, 농촌, 그리고 가정생활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연계활동을 통해 적극 협력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가정생활의 향상이라는 전제하에 실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정생활 교육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가정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본인들의 교육요구라는 주관적 측면과 더불어 이들의 실제적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진단이 이라는 객관적 측면이 상호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관적 요구를 기초하여 앞으로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공세권 외, 1990, 한국가족기능과 역할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명숙, 1995, 가족복지 기능강화 : 한국적 복지모형 정립과 정책방향(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희·한경혜, 1996, 도시근교 농촌주부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 7(2) : 129-138.
- 김인숙, 1995, 거주지대에 따른 농가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을 중심으로-, 한국농촌생활과학회, 6(1) : 55-64.

- 김인숙·임평자·김희순, 1996,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사용. 한국농촌생활과학회, 7(1) : 81-.
- 김인숙·최은숙, 1993,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 수준에 관한 연구 -생활의 질에의 접근을 위한 시도-.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2) : 83-98.
- 나순애·이승교, 1993, 농촌주부의 생활개선 교육요구분석Ⅱ -생활개선 교육의 내용과 관련변인 분석-. 한국농촌생활과학회, 4(2) : 127-138.
- 나순애·이한기, 1993, 농촌주부의 생활개선교육요구분석Ⅰ -생활개선 교육의 방법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2) : 115-126.
- 노자경, 1996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관련 변수. 한국농촌생활과학회, 7(2) : 139-152.
- 노자경·최은숙, 1995,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 한국가정관리학회, 13(1) : 58-68.
- 박병호 외, 1997,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박선화·채옥희, 1996, 농촌주부의 가정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 7(1) : 69-80.
- 박인선·안지연, 1995, 도시·농촌지역 어머니의 보육시설 질적 기준에 대한 인식비교. 한국농촌생활과학회, 6(2) : 121-136.
- 배희선·최은숙, 1995, 농촌 주부의 재무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도시근교 농촌을 대상으로-. 한국농촌생활과학회, 6(2) : 137-150.
- 변용환, 1995, 가족복지 기능강화 : 한국적 복지모형 정립과 정책방향(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어성연·신상욱, 1996, 노인의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학습요구도 분석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4(1) : 93-105.
- 오윤자, 199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 1989, 한국가족의 대내적 기능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길순·이원영, 1997, 성남시 여성의 사회교육요구분석. 한국농촌생활과학회, 8(1) : 45-55.
- 이연숙, 1998, 성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론. 서울 : 학지사.
- 이정연외 (역), 1996, 가족생활교육의실제. 서울 : 하우.
- 이정화·최은숙·한경혜, 1995, 도시근교 농촌부부의 갈등표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 6(1) : 41-54.
- 이한기·한귀정, 1994, 농촌 가족구조 분석. 한국농촌생활과학회, 5(1) : 57-66.
- 임광명, 1992, 농촌여성 생활개선교육 프로그램개발의 요구분석적 접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희, 1998,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생활과학회, 7(1) : 247-266.
- 임정빈 외, 1998,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 163-180.
- 정영금, 1996, 사회교육에서의 가족자원관리교육의 전개방향. 대한가정학회지 33(5) : 269-278.
- 채옥희·김정훈·박성욱, 1992, 전북지역 농, 어, 산촌 주부의 가정생활요구도에 따른 가정생활복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 205-222.
- 채정현, 1996, 미국 오하이오주의 실천적 문제 중심 모형을 적용한 "일과 가족생활 교육과정"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도. 대한가정학회지 34(4) : 327-343.
- 최은숙, 1995, 농촌빈곤가계의 경제문제Ⅰ -경제자원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생활과학회, 6(1) : 73-84.
- 최은숙·노자경, 1995, 농촌빈곤가계의 경제문제Ⅱ -소비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생활

- 과학회, 6(2) : 151-162.
- 한경혜·장미나, 1993,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 4(1) : 45-56.
- [http : //www.hec.ohio\\_state.edu/hanna/](http://www.hec.ohio_state.edu/hanna/)
- Rodgers, D.L. etc, 1995a, Review of extension programs, Juab County, Utah, Dec. 5-6,
1994. USU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s
- Rodgers, D.L. etc, 1995b, Country Planning and Review Process. USU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s
- Rodgers, D.L. etc, 1995c, Critical issues facing Utah families. USU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s